

지역 소식통

심덕섭 고창군수, 고속도로 휴게소서 고창방문의 해 홍보

심덕섭 고창군수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1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알리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지역 사회단체, 고창군 관계자들이 고창 고인돌 휴게소 하행선에서 떡국떡을 나눠주며 고창방문의 해를 홍보했다.

특히 귀성객 참여 이벤트도 눈길을 끌었다. '고창 방문의 해 피켓'을 들고 있는 인형수박, 복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고창군 숙박권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설 연휴(21~24일) 고창읍성, 동리시네마는 정상 운영되며, 고인돌박물관은 22~23일에만 휴관한다. 상하능원은 토끼띠(1951, 1963, 1975, 1987, 1999, 2011년생) 무료입장과 함께 능원내 검은토끼를 찾아 인증샷을 찍으면 경품을 주는 '검은토끼를 찾아라'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귀성객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힘을 쏟았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특성상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 자치단체에만 기부할 수 있어 출향민은 물론 최대 유동 인구가 발생하는 명절을 최후의 홍보 기간이라고 판단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설을 맞아 고향 정읍을 방문하는 출향민의 자발적 기부분과 활성화를 위해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각 읍면동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포스터와 전단지 배부했다.

또한, 정읍시 홈페이지와 SNS(카카오 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답례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방과 후 교육 지원

3억6000만원 투입... 1인당 최대 81만원 교육비 증액

정읍시가 지역 내 사회적 약자층 가정 학생들이 행복한 배움을 통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 역할에 나선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학습능력을 높이고자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은 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선정된 과목을 제외한 미술, 음악, 무용 등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이다.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50명 늘어 총 45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비는 3억6,450만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4050만원 증액된 것으로, 학생 1인당 월 9만원 씩 9개월간 최대 81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은 물론 돌봄과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습활동 등 청소년복지 사각지대 발생에 따라 부진했던 진로 탐색과 자격증 취득 등 특기 적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간 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공동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2월 3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배움의 기회를 넓히는 복지사업을 통해 정읍에서 자라나는 모든 청소년이 소외됨 없이 꿈과 미래를 키워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역군이 될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재)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심덕섭) 이사회가 최근 군청에서 열렸다.

"미래 위해 인재육성에 최선을"

고창군장학재단, 지역인재 육성 위한 새해 첫 이사회 열어

고창군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역군이 될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재)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심덕섭) 이사회가 최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재단은 이번 이사회에서 재단법인 고창군장학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인사 및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고창장학수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고창장학수 운영관리 시행 예규 일부개정(안), 2022년 기탁금 사용승인(안), 2022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2023년 사업계획 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 이월사업 보고 안건 등 9건을 심의했다.

장년 취업시도 장학생 선발 기준을 변경하여 학교 간 불평등을 해소했으며, 장학수입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보수하는 등 환경

을 정비할 예정이고 2인 1실에서 1인 1실로 변경하였다.

또한 (재)고창군장학재단은 올해 △고창군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서울·전주 장학수 운영 △우수대학 캠프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인성교육을 위한 예절학교 운영, 고창인재 키우기 장학금 후원 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학생들의 애양심 고취와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심덕섭 이사장은 "장학수 운영과 장학금 지급, 대학등록금 지원 등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지속적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장학재단의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고창의 미래를 위해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대상 대폭 확대된다

정읍시, 새해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 완화·경작사실확인서 발급 기준 강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요건이 개선됨에 따라 정읍지역 내 지원 대상 농지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요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요건은 충족했으나 2017~2019년도 직불금 지급 농지도 올해부터 추가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는 신규 신청농지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실경작 확인을 위한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및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작사실확인서는 농지소재지 읍·통장 1인과 마을 농업인 2인 총 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 확인을 받아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경작 사실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직불금이 환수 조치 된다. 또 환수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도 부과되며, 최대 8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등록이 제한된다.

직불금 신청 시 농지 변동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경작면적이 달라졌

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2월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전 자격요건을 검증한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등록 대상으로 통지받은 스마트폰, 자동전화 응답 시스템(ARS)으로 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 3월부터 4월 28일까지는 방문 신청 기간으로 신규신청자와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인은 경작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불가사리 액비 공급 3년간 농가경영비 38억원 절감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는 작년 12월말 폭설과 강풍으로 생육이 저조한 시설작물의 냉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0농가 2500여동 시설하우스에 대하여 불가사리 액비를 무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불가사리는 바다의 해적이라고 불리며 양식장 등을 황폐화시켜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 이러한 불가사리 구제를 위해 많은 시군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수거한 불가사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 토양오염,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는 골치거리 생물이기도 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안군은 불가사리 자원화 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불가사리 액비로 만들어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3년간 총 240톤의 불가사리를 부안 읍면에서 수거하여 부안



군내 양식장의 어패류를 보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121톤의 액비를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38억원의 농가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해양 생태계 보전과 화학비료 절감으로 자연 순환농업에도 기여하고 있다.

불가사리 액비(상품명: 불가)의 주 성분은 아미노칼슘으로 광합성 촉진과 도복방지, 뿌리발달 촉진 및 수량 증대 효과가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센터에서 생산 보급중인 미생물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청년 취업시험 준비반 운영

정읍시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고, 전문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청년이 정읍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취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년 취업시험 준비반'을 운영한다.

'청년 취업시험 준비반'은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 준비를 위해 수도권 등 대도시로 올라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지역 자금은 물론 인구 유출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다.

청년층이 타 시·군으로 유출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

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화수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마련됐다.

관련해 시는 올해 청년취업시험(공무원 및 공기업NCS) 준비반에 참여할 수강생 120명을 모집한다.

운영과정은 공무원 직강 과정(A), 공무원 동영상 과정(B), 공기업 NCS 직강 과정(C) 3개 과정이다.

응시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정읍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그 시민의 배우자 및 자녀로 만 18세부터 만 39세까지다. 단, 접수일 기준 응시자 본인이 정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